

이 나라와 외국에 대한 밥다다의 소식.

오늘 밥다다는 자녀들과 순회 여행을 돌아왔다. 밥다다가 온 세계를 한 바퀴 다 도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는 여행을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즉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인지, 핵심만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오늘은 2종의 외국인들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므로 바바는 그의 여행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그가 외국에서는 뭘 보았고 이 나라에서는 뭘 보았겠느냐?

얼마 전에 특별함의 물결이 해외에서 바라트로 밀려왔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외국에서 사람들이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편의시설에 끊임없이 몰두해 왔던 것처럼 바라트의 사람들도 역시 행복을 얻으려고 외국의 시설들을 사용해왔다.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고 그들은 아직도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외국 시설들을 쓰는 데서 크나큰 도취감을 경험하고 있다. 바라트 사람들은 일시적인 시설의 사용을 모방했고, 이 모방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힘을 잃었다. 그들은 영성에서 멀어졌고 행복을 위한 외국의 시설에서 지원을 취했다. 외국들은 뭘 했겠느냐? 그들은 아주 지각 있는 일을 했다. 그들은 바라트의 참된 영적인 힘을 자기들의 나라로 끌어들이었다. 그 결과, 해외에서 아주 많은 수의 추종자들이 영적인 힘을 가졌거나 구루라고 알려진 자라면 누구든 따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외국의 영혼들은 인위적인 시설을 버리고 참된 것과 영성에 대단히 매료되어 있는 반면, 바라트 사람들은 인위적인 시설에 몰입했다. 자기네의 고유한 것들을 버리고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외국의 영혼들은 진정한 것을 추구하고 알아보고 얻으려는 대단한 열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라와 외국들을 순회 여행하는 동안 밥다다는 바라트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보았다. 바라트 사람들을 보면서 밥다다는 최고로 높은 가문의, 1등의 종교에 속하는 영혼들이 그들 고유의 특별함을 망각해버리고 더 나중의 종교에 속하는 영혼들이 이미 버린 것들을 채택하는 데 그토록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며 자비심을 느꼈다. 이런 이유로 고향인 바라트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은 바라트에 온 고결한 손님인 아버지조차 모르는 반면, 외국의 영혼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해진 메시지를 듣고도 아버지를 알아보고 여기에 왔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2종의 외국인들이 아주 예리한 인식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인식의 눈과 경험을 통해 보고 획득했다. 밥다다는 바라트의 사람들에게, 특히 아부의 주민들에게 자비를 느끼는데, 왜냐하면 그토록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인식의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식의 눈은 멀어 있는 상태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 자비를 느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바는 2종의 외국인들의 경이로움을 보고 있었다.

바바가 또 뭘 보았겠느냐? 오늘날 바라트가 가난하듯이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옴에 따라 외국 사람들도 별로 풍족하지 못하다. 나무가 한창 잘 번성하고 있을 때는 과일과 꽃으로 뒤덮이지만 그것이 말라들기 시작하면 열매와 꽃들도 마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한 상태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어떤 한 나라의 특별한 성취의 열매와 꽃도 역시 말라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외국에서도 취직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전에 너희가 외국에서 이 문제를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따라서 이것도 역시 행복의 시설과 평화라는 결실이 말라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하나다. 바라트라는 주된 밀동이 말라들고 있으며 주된 가지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마지막의 주된 가지다. 나무 그림에서 어느 가지가 기독교를 나타내느냐? 너희가 보여주는 주된 가지들 중에서 마지막 것이 아니냐? 그 가지까지는 번창해왔던 풍요의 성취가 이젠 말라들었다. 이것이 나무 전체의 쇠퇴 상태를 보여주는 징표다. 그래서 세계 전체에서 바바는 일시적인 성취의 열매들과 꽃들이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 외에는 단 두 가지만 더 있다.

하나는 마음으로, 또 입을 통해서 울부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대로 그 나라에서 살며 나라를 운영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울부짖고 (칠라나) 과제를 계속하는 (찰라나), 이 두 가지만 남았다. 대단히 행복해하며 지내던 것은 끝났고 남은 것은 단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나타내는 표시겠느냐? 사람이 강요에 의해 얼마나 오랫동안 모든 걸 계속해 나갈 수 있겠느냐? 울부짖고 있는 세상에 지금 너희들은 뭘 해주느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성취의 날개를 달아줘서 그들이 날게 해라. 누가 그들을 날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들 자신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느냐? 너희는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느냐, 올라가는 단계에 있느냐? 상승단계로도 안 된다, 이제는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도달했느냐? 2종의 외국인인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너희들 대다수는 아버지처럼 선생의 자질을 지닌 자들이 아니냐? 선생이란 날아다니는 단계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맞아.

오늘 바바는 그저 순회여행에 대한 소식만 들려주었다. 이제 이 나라와 외국에서 온 자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징표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다. 오늘날에는 뭔가 일어나면 그들은 그 일이 1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얘기한다. 아주 독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독특한 아버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다. 모든 이가 지각 속에 아주 뚜렷한 이 의문부호를 담고 있다. 지금 나오는 말은, 일어나야 했던 일은 뭐든 일어났다, 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오셨다. 의문부호는

끝나고 마침표가 찍힐 것이다. 휘저으면 버터가 나오듯이, 즉 처음엔 동작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엔 버터가 나오듯이, 오직 의문부호의 격변 후에만 게시라는 버터가 나올 것이다. 격변은 엄청난 속도로 이미 시작되었다. 게시라는 버터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눈에 보일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 버터를 먹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모든 이가 천사인 너희들을 불러내고 있다. 앗차.

뭔가 결여된 영혼들이 모든 성취를 다 얻게 해줄 수 있는 자들에게, 인식의 눈을 모든 이에게 기부하는 대 기부자들에게, 축복의 공여자이며 모든 이에게 축복으로 충족감을 주는 충족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다른 영혼들이 각자 성취의 날개로 날도록 만드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날아다니는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세상 앞에 드러난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비약트 밥다다가 외국에서 온 자녀들의 그룹을 개인적으로 만나심 :

너희들은 한결같이 모든 성취로 가득함을 경험하느냐? 모든 성취를 경험하느냐? 모든 성취를 다 경험하는 영혼에게서 보이는 표시는 무엇이나? 그는 한결같이 충족되어 있을 것이다. 충족되었다는 표시가 그의 얼굴에서 변함없이 보일 것이다. 그 영혼이 모든 걸 다 성취했다는 것이 그의 얼굴에서 보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왕자, 공주, 또는 높은 가문 출신인 이의 얼굴을 보면 그 영혼이 참만하고 충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가문에 속하는 너희들 역시 다른 누구도 이제껏 성취하지 못한 뭔가를 성취했다는 것이 얼굴에 보이게 해라. 너희의 행동과 얼굴이 변했다고 느끼느냐? 성취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났느냐? 2종의 외국인들은 기회를 곱절로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봉사도 곱절로 해야 한다. 너희는 봉사를 어떻게 두 배로 하려느냐? 단지 말을 통해서 뿐 아니라 너희의 행동과 얼굴을 통해서도 해야 한다. 너희가 나방이 된 것처럼 너희는 다른 많은 영혼들을 불꽃에게 데려올 영혼이다. 너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다른 영혼들도 너희 뒤에서 날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의 깊숙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모든 미덕에 대한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너희가 깊숙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너희가 매일 평화의 화신임을 경험하듯이 매일 새로움을 경험해라. 너희는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고독 속에 홀로 있다는 것은 항상 물리적으로 홀로 있으면서 또 끊임없이 한 분에게 깊숙이 잠겨 있는 상태로 머문다는 뜻이다.

너희가 “바바”라는 말을 거둬들 때마다 매번 뭔가 새로운 경험이 있게 해라. 초창기에 왔을 때 너희는 “바바”라는 말을 사용했다. 마두반에 도착했을 때도 너희는 똑같은 “바바”라는 말을 썼다. 이제는 너희가 집에 돌아가야 하고 너희들은 동일한 “바바”라는 말을 쓸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왔을 때 그 말을 하던 방식과 지금 그 말을 하는 방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 경험을 하지 않느냐? “바바”라는 같은 말이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성취한 것을 기준으로 “바바”라는 하나의 말에 대한 너희의 경험은 커졌다. 그러므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같은 방식으로 날마다 모든 미덕을 새로 경험해봐라. 너희들은 평화의 화신이지만 어떤 요점을 기반으로 너희가 평화를 경험하느냐? 예컨대 “이 영혼인 나는 파람담의 주민이다”라 말할 때 너희는 평화를 경험한다. 하지만 “이 영혼인 나는 황금시대 평화와 행복의 화신이다”라 할 때, 그 경험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행위를 행하는 동안 평화를 지 못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 영혼인 나는 평화의 화신이다”라 할 때는 그 경험이 뭔가 좀 다르지? 비록 너희가 평화의 화신이긴 하지만 그 셋 모두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평화의 화신이 되는 너희의 경험에 날마다 발전이 있게 해라. 때로는 하나의 요점을 통해서 평화의 화신이 되는 경험을 하고, 다른 때는 다른 요점을 통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며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바쁘게 하면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기억의 방법과 멀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듣고 공부하며 움직여 나아간다면 너희는 그것을 평범한 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열의가 늘지 않고 항시 그대로이다. 그 결과 너희가 때로는 “난 이걸 하는 방법을 알아! 이건 이미 알고 있어”라며 부주의해진다. 그렇게 되면 날아다니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또 너희가 도구가 된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방법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경험해라. 이해하느냐? 너희 영혼들의 대다수는 봉사의 도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특기를 반드시 훈습해야 한다. 날마다 뭔가 요점을 하나씩 뽑아내라. 평화의 화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요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사랑과 희열의 화신이 되는 특별한 요점을 지각 안에 간직하고 매일 새로운 경험을 가져라. 언제나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기억하고 남들에게도 똑같은 그 경험을 줘라. 그러면 암릿 벨라를 하려고 앉을 때 너희는 대단한 흥미를 느끼며 앉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의 파도가 밀려온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받을 때는 너희가 게으름을 느끼지 않는다. 같은 것이 거둬 되풀이될 때는 게으름이 살짝 끼어든다. 그러면 너희는 뭘 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방법을 이해했느냐? 만일 질문이 있으면 지금 물어볼 수 있다. 외국인들은 어쨌든 대개 다양성을 좋아한다. 소풍을 갈 때는 뭔가 짭짤한 맛이 나는 것과 달콤한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특별한 경험을 위해 앉을 때마다 다양성의 소풍을 가기 위해 밥다다에게 가고 있다고 여겨라. “소풍”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희는 정신이 초롱초롱해질 것이다. 게으름은 도망가 버릴 것이다. 어떤 경우든 너희들 모두 소풍과 외출을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니 외출을 해라! 때로는 파람담에 가라. 때로는 천국에 가라. 때로는 마두반에 가라. 때로는 런던 센터에 가고 때로는 호주에 가라.

다양성이 있을 때 너희는 재미있다고 느낀다.

Blessing: 무한하고도 완전한 권리를 가졌다는 믿음과 영적인 도취감을 지닌, 최고로 고결하고 부유한 이가 되어라.

지금 현재 너희 자녀들은 전능한 권위자에게 권리를 가질 정도로 고귀하고도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신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녀들은 모든 관계와 완전한 부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가장 고귀한 부를 축복으로 받는 것은 지금 이때뿐이다. 너희에게는 모든 미덕들, 모든 힘들, 고결한 지식이라는 불멸하는 부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도 너희들만큼 부유할 수 없다.

Slogan: 변함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라, 그러면 부주의함이 끝날 것이다.

*** 옴 샐티 O M S H A N T I ***